論 壇

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

—大學의 社會史(3)—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敎育學科)

베를린大學의 지도 이념인 '學問의 自由'는 일찌기 없었던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학문 연구의 自主性을 성취하게 하였다. 반면, 우리들은 '學問의 自由'가 배출한 독일 교양 계층의 강한 國家 依存性 속에서 그 자유의 한계와 허구성을 역력히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敎育 不在의 산업 사회에서는 훔볼트적 敎養理念이 재음미되어야만 한다.

大學의 社會史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2.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
3. 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
4.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1. 머리말

막스 베버는 도시와 더불어 대학의 존재를 서유럽에 독특한 역사적 산물로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때 그는 도시와 대학이 지닌 자치적 성격 내지 자유의 이념에 결부하여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대학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의 개념은 근세 독일의 대학에서, 특히 베를린대학의 지도 이념인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를 통해 정립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앞의 글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시민적 자유 일반에 용해되며 특별히 '대학(학문)의 자유'란 개념은 없었다. 'academic freedom'이란 용어는 187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서, 그 이후 이 말은 독일어의 'Akademische Freiheit'의 직역어로서 특정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본고가 독일을 중심으로 논술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中世에서의 '대학의 자유'의 개념

유럽 중세에 있어 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조합(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orium)'으로 성립되어, 그 명칭이 말하여 주듯이 학생과 교사의 자치적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대학의 자치적 성격은 대학 기구의 편성에 잘 반영되었다. 즉 대학은 그 자체가 선출한 대학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재판권을 지닌 'Rector(총장)'에 의해 관리되며, 호선되는 'Dekan'(학부장)을 장으로 하는 學部(Facultät)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대학은 'Doctor(학위)' 수여의 시

혐, 승진권 및 교수 인가권을 독점하고 그 밖의 각종 대학 보직, 컬리지와 강당의 命名權 등을 지닌다. 그리고 대학은 이들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의 정지(cessation)'와 '이주 〈migration 혹은 '퇴거(exodus)'라고도 한다〉'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상과 같은 대학의 '조합적인 자치(korporativen autonomie)'는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학생과 교사의 투쟁에 의해 성취되고 유지된 것이었다.

자치권이라는 대학 본질의 수호를 위한 투쟁은 우선 교회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다.

칼大帝(742~814)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교육을 베네딕트교단에 위임한 이래, 그리스도교적 세계에서의 교육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교회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중세 대학 창건 이후, 그의 보호 감독권자인 대학 소재지의 주교는 대학의 '정관(statuten)'을 제정하는 한편 자기의 권한을 그의 대리인인 尙書(concellarius)에게 위임하였다. 대학에 대한 교회의 권리 행사는 중세 대학이 대체로 신학부 중심으로 편성되고, 그리고 교사의 대부분이 성직자이며 또 학생의 대다수가 성직 후보자인 신학부 학생이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우리들은 대학과 교회의 대립상을 파리대학의 예를 들어 살펴 보자.

파리대학이 '대학(Studium Generale)'이라는 명칭으로써 정식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은 1208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192년에서부터 1231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투쟁에서 비로소 자치권을 손에 넣었다. 특히 1225년의 투쟁에 의해 13세기초까지 받아 왔던 파리 대주교의 상서의 감독권——상서는 교수권의 수여 및 학생 처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대학의 문서는 모두 그의 서명을 필요로 하였다——을 배제하고 대학의 독립을 확보하였다. 대학 독립의 상징인 '대학의 印章'은 1246년에 공적으로 인정되었으며, 1237년부터 그 명칭이 쓰여진 'Rector'가 1249년 이래 대학의 법적 대표자로서 문서에 기록된다. 이것은 곧 대학 자치와 독립의 성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학과 세속권(왕권 및 도시)의 대립에 대해 살펴 보자. 군주나 도시 공동체는 그들에게 경제적 이득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대학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3세기의 왕권의 강화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파리대학과 세속권과의 최초의 충돌은 1229년의 유혈 사건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관헌의 난투극 끝에 몇몇 학생이 살해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대부분이 '강의 정지'권을 행사하여 오를레앙으로 옮겨 갔다. 그 결과 2년 동안 파리에서는 거의 강의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Ⅸ세는 파리의 주교와 생 제르망데 프레의 대수도원장에 대하여 파리대학의 특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 일련의 大勅書, 이른바 대학의 '大憲章'(1231년)을 내렸다. 파리 대학의 입법권까지도 승인한 이 대칙서에 의해 대학의 자치권은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파리대학의 경우와 비슷한 聖俗 양권과 대학의 싸움은 옥스포드와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분쟁들은 대체로 대학의 승리로 타결되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뒷받침이 된 것은 자치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대학 자신의 강한 의지보다도 전통적으로 대학 후견인 역할을 하여 온 교황권의 존재였음은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황권은 언제나 대학의 편에 섰던 것이다. 파리대학의 경우 교황 인노켄티우스 Ⅲ세와 특히 그 자신이 볼로냐대학과 파리대학에서 수학한 바 있는 그레고리우스 Ⅸ세의 뒷받침이 컸다.

그런데 우리들이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세대학의 투쟁이 학생이나 교수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학문·사상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이다. 13세기초의 파리 주교에 대한 몇 차례에 걸친 투쟁에 있어 대학이 내세운 명분은 대학의 자치권과 이른바 '가르치는 자유'였다. 그러나 그 자유의 주장은 결코 학문·사상의 자유나 교수 활동의 자유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무렵 자주 있었던 교구 교회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 1382년과 1411년의 옥스포드대학 사건도 대체로 하급 학부인 학예학부, 즉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등의 상급 학부에 대한 반감에서 발생된 성격이

질었다.

'가르치는 자유'의 원칙은 1197년의 라테란의 종교 회의에서 확정되고 그 이후 교회 법전에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당한 인물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다녔다. 그리하여 그 '자유'는 교회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유보되고 간섭될 수밖에 없었다. 중세에도 'libertas scholastica'(이 말은 훗날 독일 대학인들에 의하여 'Akademische Freiheit'라고 번역된다)란 용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속 없는 학생 생활의 자유를 의미하는 말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가르치는 자유(Lehrfreiheit)'나 학문·사상의 자유의 관념과는 별로 연관이 없었다. 그레고리우스 Ⅸ세에 의해 파리의 교수들에 대하여 '神의 말씀을 철학자의 거짓으로써 더럽힘'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대학은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학문과 사상의 문제를 둘러싼 저항이 중세 대학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토會 수도사인 셀의 페투루스(1183년 사망)는 대학이 소재한 파리를 악마의 소굴처럼 저주하였다.

> "오! 파리여, 그대는 얼마나 빈틈 없이 영혼을 덫고, 그리고 사기술에 능란한가. 그대의 태내에서는 악의 합정, 사악한 길, 오도하는 음모, 지옥으로 인도하는 화살이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가 지혜에 찬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노력하지 않고는 어떠한 강의라 하더라도 영원한 삶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복이 아니니, 아무도 여기에서는 책 따위는 사지 않는다. 아무도 문장술을 가르치는 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하나 토론이나 복잡한 소피스트적 논의에 관계하지 않는다."

대학이 있는 파리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아테나이로 여겨져 전 유럽으로부터 학도들의 순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기성 교회의 입장에서는 허위의 철학과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당대의 바빌론을 의미하였다.

대학과 교회의 사상적 갈등(이에 관한 한 속권은 대체로 중세에 있어 무관심하였다)의 초점은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이나 교수의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와 신학부는 철학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비난하고 박해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추세는 철학부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학문·사상의 자유의 관념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중세 대학이 자치권이 부여된 체제 위에서 아벨라르적인 인식에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톨릭적 중세에서는 신앙이 학문에 우선하고 철학이 신학의 노비의 위치를 감수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학의 '대헌장'을 발표한 그레고리우스 Ⅸ세도 파리의 교사나 학생들에게 '철학자임을 나타내지 말고 신의 학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언명하였다. 중세 대학의 학문적 자유란 실질적으로는 법학부와 의학부 혹은 학예학부 내의 문법이나 수학 부문에서나 누렸을 뿐, 철학부와 신학부는 예외였다. 그리고 철학은 신학적 문제에 접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자유로이 교수되고 토론되었다. 그리고 신학부와 철학부의 경계는 敎父들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졌다. 그렇듯 학문·사상·연구의 자유의 부재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또 중세 대학의 자치와 특권이 지녔던 그 한계——그것은 유럽 봉건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길드적 자치와 결국 차원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를 세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대학의 자유란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바랄 수 없는 근대적인 산물인 것이다.

3. 'libertas philosophandi — 哲學하는 自由'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세에 있어서 대학은 종파 및 절대 왕권을 위한 有用性의 원리(독일)나 반시대적 스콜라주의의 아성으로서(프랑스) 혹은 지배 계층의 교양교육을 위해(영국) 그 기능을 다하였다. 이 모든 현상이 다 같이 인식에의 의지를 지향하며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조합'으로서 탄생된 대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학사는 근세를 유래 없는 대학의 침체기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 갱신의 새로운 물결은 독일의 할레와 괴팅겐에서 일어났다.

1694년 프로이센王 프리드리히 I세는 '철학하는 자유(libertas philosophandi)'를 기본 원리로 하는 할레대학을 창건하였다. 프리드리히 I세는 대학 창립 개교식(1701년)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뜻을 밝혔다.

> "짐은 이제 짙의 군대 및 즈국 방위에 부자한 막대한 경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짐은 싸움터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학문과 예술의 神 뮤즈를 위한 자유로운 전당을 세우고자 한다. 생각하건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에게 地上의 조국을 부여하는 것은 학문이기 때문이다."

할레대학의 창건에 즈음하여 왕은 전통 루터파의 아성인 라이프찌히대학으로부터 추방된 철학자 볼프(Ch. Wolff)와 자연법 학자 토마지우스(Thomasius) 및 신학자인 프랑케(Franke)를 초빙하였다. 볼프는 스콜라적 길드적인 대학의 전근대적 성격에 저항하고 학문에서는 '전적으로 理性에 기초한 사상'만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 독일어로 강의하고 저술하였으며 철학 용어로 그의 모국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교수였다. 한편 토마지우스는 학문에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이성'을 주장하고, 독일 대학에서 최초로 독어 강의를 하는 등 대학 근대화에 볼프와 함께 큰 힘을 다하였다. 광신과 성직자의 과도한 지위에 비관적이었던 경건주의적인 프랑케와 더불어 이 세 학자는 당시의 독일에 있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대표한 그리고 그만큼 또 선구적인 대학인이었다고 할 것이다. 할레대학 창건의 배경에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졌던 프로이센의 영토 지배의 필요성에 의한 종파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또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할레대학은 종파적 평등, 즉 종교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 종교적 자유가 바로 '철학하는 자유'에 이어지고 발전되었으며 그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특히 볼프였다. 그는 "철학하는 자유를 정당하게 승인하는 한…… 그로 인해 종교·도덕 및 국가의 위험을 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이 '철학하는 자유'의 내용을 군틀링크(Gundling)의 유명한 연설 '할레대학의 자유에 관해(De Libertate Fridericiana)'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

군틀링크는 토마지우스의 제자로서 1707년 이래 할레대학의 수사학 교수였다. 그는 1711년 대학 창시자인 프리드리히 I세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행한 연설에서 ① 대학에서의 자유의 필연성, ② 대학에서의 자유의 필요성, ③ 교수의 자유에 관한 군주의 견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첫째, 군틀링크에 의하면, 대학이란 젊은이들이 배우는 '사려 분별의 장'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학문 연구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권위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신이 부여한 '정신의 빛'에 의해 자유로이 생각하여야 한다. 생각하는 자유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자유(Denkfreiheit)'의 불가침성, 이것이 곧 군틀링크가 강조하는 제일의 요점이었다. 그런데 군틀링크에 의하면 생각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연관된다. 진리의 인식은 개개인의 결정에만 맡겨져야 하며 지배의 제한 밖에 놓여 있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논증에 의해 진리를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대학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문의 번영을 희망하는 자는 진리의 추구가 자유의 공기 속에서 행해지도록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여야 한다.

둘째,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항시 오류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오류는 권력에 의해 박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대학에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교수의 자유와 저술의 자유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그 지배자가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엄격한 테두리 속에 붙잡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가 학교, 교회 및 국가 속에 침투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유란 군틀링크에 있어 올바른 이성이나 성서에 반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저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도 같이 올바른 이성에 뿌리박혀진 것을 의미하였다. 그는 생각하는 자유가 어떠한 입법에 의해서도 구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사상이나 견해 차이의 불가피성을 존중하며 그것은 대학과 학자가 존재하는 한 존속될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 대학인은 생각과 견해의 이질성에 대해 관대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학문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문의 자유와 특히 학문 연구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한 뒤 군틀링크는 대학의 창립자로서의 왕과 교수의 자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학의 자유는 왕의 총명의 증명으로서 자비롭게 주어진 것으로 대학인은 학문의 담당자로 진리에 전념하도록 왕에 의해 초빙된 존재라는 것이다. 끝으로 군틀링크는 할레대학의 자유를 찬미하며 그의 연설을 끝맺었다.

할레대학은 당시 '자유로운 사상의 성'으로 불리우고 각지에서 학생이 모여들어 근 1천 3백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 없는 많은 학생 수를 헤아렸다. 그리하여 할레대학을 본받아 여러 대학이 만들어졌거니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괴팅겐대학이다.

1737년에 하노버 왕가에 의해 창건된 괴팅겐대학은 '철학하는 자유'와 관련된 '교수의 자유(Lehrfreiheit)'를 확립함으로써 할레대학과 더불어 대학의 근대화에 획기적 위치를 지닌다. 이미 할레에서의 '철학하는 자유'의 원리에 의해 연구와 교수의 통일이라는 개념이 싹텄다. 그리하여 학문과 교수의 중세적 관념이 점차 청산되었으니 교수는 단순히 기성의 교리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자유로이 사색하고 연구하며 그 연구 결과를 강의하여야 한다. 학문이란 연구자인 교수에 의해 성취된 연구 결과이다. 이 새로운 교수상과 학문관은 당시로서는 혁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그것

할레대학의 '철학하는 자유' 속에서 태동되고 괴팅겐의 '교수하는 자유'에 의해 결실된 것이었다.

'교수의 자유'의 사상은 괴팅겐대학의 특색인 세미나 형태의 학습 지도와 부속 연구 시설, 충실한 도서관에 반영되는 한편, 특히 신학자 모스하임의 창의에 의한 신학부의 새 규정에 잘 나타났다. 파리대학의 관례에 따라 유럽 대학의 신학부는 그것이 선정한 몇몇 교수를 통해 전통적으로 다른 학부 교수에 대한 검열과 이단자에 대한 고발을 그 주요한 권리로 행사하여 왔다. 이러한 신학부의 월권이 괴팅겐대학에 있어 처음으로 금지되었다. 당시 철학부의 한 교수가 정부로부터 무신론자로 낙인이 찍히어 강의 금지를 통고 받았을 때 신학부는 이에 대해 강경하게 저항하여 '교수의 자유'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교수의 자유'를 통해 괴팅겐대학은 그 명성이 할레대학과 더불어 범 독일적이 되고 대학의 자유와 근대화의 길을 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할레와 괴팅겐에서의 '철학하는 자유' 및 '교수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군주의 계몽주의적 배려에 의해 그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것은 17, 18세기의 계몽 전제주의의 國家理性(Stoatoralson), 즉 군주권의 利害에 좌우되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자유는 중세 스콜라주의의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하면서도 국가나 군주권에 여전히 의존하고 예속됨을 면치 못하였다.

1794년의 프로이센의 일반란트法은 "대학은 특권 단체로서의 모든 특권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2부, 제67조). 그러나 그 제1조는 학교 및 대학이 '국가의 시설'임을 밝히고 제2조에서는 "이들 시설은 국가의 관여 및 승인에 의해서만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대학의 정간은 17세기 이래 대학 자신에 의해 기초될 수 있었다고는 하나 군주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할레나 괴팅겐에 있어서도 대학 총장은 국왕이었다. 할레에 있어서조차 학칙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괴팅겐에 있어서는 설립 당시의 勅令에 의해 교수에게 '왕실 및 국가의 정치 문제에 대해 집필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할레에 있어서도 당시의 유럽 대학이 그러하였듯이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정이 있어 교과서에 따라 강의해야 하고 자기의 노트에 의한 강의는 금지되었다. 孔子를 예찬함으로써 무신론자로 몰려 할레에서 다시 추방된(1724) 볼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철학하는 자유'란 필경은 군주의 자기 중심의 카메랄리즘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대학과 학문의 국가 권력 내지 군주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자유, 즉 '학문의 자유'가 요청되어야

했다. 이제 우리들은 베를린대학의 창건과 그것이 성취한 '학문의 자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4. 베를린大學 창건과 '學問의 自由'

베를린에 '일반 고등교육 시설'을 세우고자 한 구상은 1780년대부터 비롯되었다. 1800년경부터 '베를린 일반 고등교육 시설' 설립을 위한 계획을 지도한 인물은 프로이센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Ⅲ세의 측근이며 자유주의적 고급 법무관료였던 바이메(Beyme) 백작이었다. 그는 1802년 베를린에 세울 '고등교육 시설(Allgeneie Lehranstalt, 이 용어는 라틴어의 Studium Generale의 독일어 번역으로서 종합 고등교육 시설을 의미한다)'의 설립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그의 의도는 길드적 구속과 당시의 실용주의적 학술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적인 일반 교육 시설을 베를린에 세우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육 문교 담당 대신이었던 司法大臣 마쏘의 의향과도 반대되고, 또 당시 프로이센의 사정으로 보아도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그 구상을 현실화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즉 1806년의 對나폴레옹 전쟁 패배의 결과로 프로이센은 할레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을 상실하게 되었다. 프로이센의 패배는 정치·사회 및 문화·교육 전반에 걸친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왕은 국가의 재생을 도모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이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신설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프로이센의 국민적 대학이었던 할레대학의 상실은 수도 베를린에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정계나 지식사회에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 신설에 관한 여러 건의서가 왕에게 제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설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명칭이 의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이메의 경우처럼 종래의 대학이 국가 권력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당시의 대학 침체와 그 전문(기술) 학교적 양상이 대학과는 다른 시설을 요구하게 했다고 할 것이다. 당시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내지 학술기관으로서는 대학, 각종 전문학교 및 아카데미 등이 있었다. 많은 건의서 중에서 특히 베를린 대학 창건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피히테와 슐라이에르마헤르 및 훔볼트에 의한 것이었다.

1807년 9월 4일 왕은 '과학 아카데미와 적절한 연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될 모든 시설 및 수단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일반 고등교육 시설을 베를린에 창건'할 모든 권한을 바이메에게 위임하였다. 왕은 그 뒤 폐쇄된 할레대학을 베를린에 옮기기를 희망한 할레대학의 교수 진정단에게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국가는 물리적인 힘에 있어 상실한 것들을 정신적인 힘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Ⅲ세의 이 유명한 말은 베를린대학 창건에 결정적 뒷받침이 된 선언으로서 역사에 기록된다.

이제 대학 창건은 왕을 선두로 한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바이메는 활동을 개시하고 교수 후보자의 인선에 착수하였으며 초빙장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초빙된 15명 중에는 슐라이에르마헤르, 피히테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피히테에 대해서는 대학 전반에 관한 상세한 구상이 요청되었다.

피히테는 당시 새로운 대학 창건을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바이메의 요청에 답하였다. 그리하여 '베를린에 창립 예정인 과학 아카데미와 긴밀히 결합된 고등교육 시설의 연역적 계획'을 1807년 11월에 바이메에게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바이메의 뒤를 이어 베를린 대학의 창건에 있어서 주역을 다한 훔볼트(W. von Humboldt)의 활동에 관해 살펴 보자.

슈타인-하르덴베르크의 개혁에 의해 대학에 관한 행정은 지난 날의 司法部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고, 종래의 종교·교육을 담당하였던 고등종무의원회는 폐지되어 내무부의 한 局으로서 宗務公敎育廳으로 새로이 발족되었다(1809년 2월). 이때 훔볼트는 그 초대 책임자가 되었다. 이 고명한 휴머니스트는 그 자신의 의지에 반해 이에 취임하였으나 훗날 딜타이는 그 人物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프로이센은 뛰어난 견식과 유능한 실천에 있어서 그와 비길 만한 문교 책임자를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니지 못

하였다."

훔볼트는 1809년 7월 24일 문교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학의 설립을 결심하고 1807년 9월 4일에 이미 승인된 '일반적 고등교육 시설'의 베를린 설립을 왕에게 진언하였다. 이 진언문에서 그는 '대학이라는 전통적 명칭'하에 '진정한 학문적 도야'를 통해 '독일의 지적·도덕적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일 제1급' 국가 기관으로서의 대학 창립을 강조하였다. 당시 프로이센의 재정난은 극심하였으나 대학 창건을 '국가 개혁에 있어서 배려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한 왕은 훔볼트의 제안을 받아 들여 1809년 8월 16일 설립 특허장에 서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 대학의 탄생이다〈그 정식 명칭은 '베를린 왕립 프리드리히-빌헬름대학(Königlichen Friedrich-Wilhelm-Universität Zu Berlin)'이며 지금은 동베를린에 있어 '베를린 훔볼트대학(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이라고 불리우며, 이에 대해 서베를린에는 1948년에 '베를린 自由大學(Freie Universität)'이 신설되었다〉.

훔볼트는 1810년 5월말 종무공교육청 장관으로서의 그의 마지막 과업으로 베를린대학 설립위원회를 개설하였다. 훔볼트는 대학 구상에 있어서 교수법은 피히테, 대학관에서는 볼프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슐라이에르마헤르의 구상과 유사하였다.

훔볼트를 중심으로 베를린대학은 개학을 추진하였다. 1809년 11월 이후 겨울 학기 강의가 잠정적으로 시작되어 슐라이에르마헤르, 피히테 및 볼프 등이 강의를 시작하였다. 1810년 6월 14일 훔볼트는 대학의 개학을 보지 못하고 장관직을 물러났다. 훔볼트가 물러난 뒤 개학은 10월 10일로 결정되고 강의는 10월 15일 혹은 29일부터 시작되었다. 초대 총장에 피히테가 취임하고 슐라이에르마헤르는 신학부장, 피히테는 철학부장을 겸직하였다. 개학 당시의 교수수는 58명으로 그 중 정교수 24명, 비정교수 9명, 私講師 14명, 어학 교수가 5명이었으며 그 밖에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강의를 담당한 학자가 6명이었다. 그들 중의 많은 교수가 저명한 학자로서 실로 유럽의 어느 대학도 비길 수 없는 당당한 진용이었다. 한편 학생 수는 개학 당시 겨울 학기의 학적 등록자(1학년)가 256명으로 신학부 29명, 법학부 53명, 의학부 117명, 철학부 57명이었는데 전체 256명의 학생 중 프로이센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 학생이 106명이나 되었다. 창립 1주년 때에는 약 450명의 학생이 재적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 철학부 학생이 신학부보다도 훨씬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올바르게 조직된 대규모의 대학을 만드는 일—만약 이것이 성공하면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 학생을 모이게 하여야 한다—은 프로이센이 독일의 주목과 존경을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훔볼트는 말한 바 있었는데 이 창립자의 소망은 성취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피히테와 슐라이에르마헤르 및 훔볼트의 대학론을 통해 베를린대학의 지도 이념이었던 '학문의 자유'의 이념과 내용에 관해 생각해 보자.

피히테는 그의 '계획' 안에서 대학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문과 학자 공동체의 이념, 대학에서의 철학의 기능 및 국가와 대학의 관계 등 실로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거니와 그것들은 당시의 대학론에 공통된 주제였다.

피히테에 의하면, 대학은 결코 확실한 성과를 가능한 한 확보해야 할 교육 기관이 아니라…… 오직 자유 의지에 기초를 둔……교양기관(Bildungsanetalt)"이다. 이에 이어 피히테는 대학의 본질과 관련하여 학자의 참된 모습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에 의하면 학자가 될 학생은 '자기의 목적에 모든 생활을 집중'하기 위해 시민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문적 교양은 '언제나 자기 생활의 근원을 이념에 두고 그에 의해 현실을 관찰하고 만들어야 한다.' 학자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공동체를 주장하는 이 관념 철학자는 소도시를 학문하는 자의 바람직한 장소로 전하고 일반시민, 대중과 함께 살아야 하는 대도시를 기피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히테의 학자관 및 학자 공동체의 이념은 당시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피히테는 "진정한 학문은 철학이요,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라고 주장한다. "지적 활동의 전제를 그 개개의 특수한 표출과 함께 전체적으로 학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기법(Kunst)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개개의 학문의 기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개의 학문의 기법은 학문 전체에 관한 철학적 기법의 특수 케이스 혹은 개별적 응용이다." 이미 피히테에 앞서서 칸트가 유명한 그의 논문 「學部의 싸움」(1798)에서 이성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연구하고 비판하는 철학부의 대학내에서의 우위를 당위적인 것으로 주장한 바 있거니와 칸트, 피히테를 비롯한 19세기 전후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에 의해 철학은 이제 전체의 학문으로 모든 개별 과학의 기초로 간주되었다. 피히테는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모든 고급 학문 교육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철학 강의가 모든 학생에게, 그리고 첫번째로 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문적 기법의 학교로서의 대학'이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끝으로 국가와 대학 혹은 학자의 관계에 대한 피히테의 견해를 살펴 보자. 피헤테는 1811년 그의 총장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사가 자유로이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이 지시되거나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사고의 결과를 제약받으며 학생에게 전달되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국가는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는 '빵을 위한 학문'을 멀리하고 있는 '최고의 시민인 학자'의 생계에 대해 언제나 배려하여야 한다. "학자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피히테는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자의 평가에 관해서는 국가가 결정권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대학을 명백히 '나라의 연구 기관(Nationalinstitut)'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를린대학의 축제를 프리드리히 빌헬름 Ⅲ세의 탄생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은 왕의 재정적 뒷받침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피히테와 더불어 베를린대학의 창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다한 슐라이에르마헤르의 대학론 「독일적 의미에서의 대학에 관한 수상」(1807~1808)에 관해 살펴 보자. 피히테의 대학론이 이념적이고 추상적인데 대해 이 「수상」에서 나타난 슐라이에르마헤르의 대학론은 이념적이면서 더욱더 현실적이었으며 훔볼트의 대학 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저명한 종교철학자에 의하면, 철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은 우선 철학 자체의 본질로 하여 필연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개별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일적 학문(철학)도 존재한다.' 그에 의하면 대학은 학문 자체에 의해, 학문에 헌신하는 자의 '자유로운 내면적 충동'에 의해 탄생된다. 대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본질을 배우는 학습', '인식의 이념'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利害를 지상 과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문의 순수성을 억압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학과 학문이 국가로부터 자주적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대학의 자유는 슐라이에르마헤르에 의하면 연구와 교육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습의 자유, 학생 생활의 자유까지도 포함되며 국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는 또 대학의 자치와 더불어 대학 내부의 민주화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교수 임용에 있어서 학자 집단이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슐라이에르마헤르의 대학론은 당시의 수많은 대학론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재직하였던 할레대학의 슈테펜스(Steffens) 교수도 1809년에 주목할 만한 대학론인 「대학의 이념에 관한 강의」를 발표하였다.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훔볼트의 대학론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 "국민의 도덕적 문화를 위해 직접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집중되는 정상으로서의 대학은 학문을 말의 가장 깊고 넓은 의미에서 취급하고 정신적·윤리적 육성에 素材를 이용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본질은 내적으로는 객관적 학문을 주관적 육성, 즉 교양과 결부시키고, 외적으로는 완성된 학교 교육을 개척되고 있는 연구와 결부시키는 일이다. 주요한 점은 여전히 학문에 있다. 대학은 가능한 한 학문의 순수 이념을 지향할 때만 목적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고독과 자유(Einsamkeit und Freiheit)가 지배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하는 대학은 국가의 모든 형태로부터 해방된 존재이다. 그것은 …… 바로 인간의 정신 생활이다. 학문과 연구를 지향하는 외부의 開暇와 내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위에 인용한 구절은 훔볼트의 「베를린 고등교육 시설의 내적 및 외적 조직의 이념」(1809~10년)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의 대학관의 기본 사상을 우리들에게 말해 준다.

훔볼트의 대학관도 피히테나 슐라이에르마헤르의 그것과 같이 학문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그는 학문을 '인간의 내면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므로 학문 연구자는 '고독과 자유' 속에서 자주적 인식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학문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학문관과 학자관을 통해 훔볼트도 또한 '기성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와 대학을 구별하였다. 훔볼트는 대학의 전문학교화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인의 '고독과 자유'를 위한 가능한 한의 국가 개입을 배제하였다. 학문 및 교육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훔볼트의 입장은 이미 1792년, 그의 나이 25세 때에 발표된 국가론 「국가 활동의 한계를 밝히기 위한 서론」에서 표명된 바 있다. "교육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육은 국가 행정의 테두리 밖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훔볼트는 그의 公敎育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고 지도하는 교육, 즉 공교육은 많은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최고의 다양성에서 기르는 일이거니와, 공교육은 단지 교사를 임명하고 부양하는 역할에만 한정할 경우에도 또한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인간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 마련이다. 모든 공교육에는 통치의 정신이 지배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국민적 형태를 강요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관에 입각하여 훔볼트는 공교육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교육 행정을 국가 권력과 유리된 지방 자치에 맡기고, 그럼으로써 자유주의적 원리에 의해 교육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학과 학술 행정에 관해서는 '학술위원회'를 구상하였다. 그 중 '학술위원회'는 그의 재임중에 실행되었으나 교육 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훔볼트가 베를린대학의 창건을 통해 실현한 '학문의 자유'의 과제는 당연히 대학(학문)과 국가 권력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설정에서 찾기 마련이었다. 그는 그의 대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는 원래 고등교육 시설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개입할 수도 없음과 그리고 그에 관여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같은 것은 고등교육 시설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욱 사태를 잘 진전시킴을 …… 언제나 자각하여야 한다." 훔볼트에 의하면 '학문을 학문으로서 추구하는' 원칙이 대학을 지배한다면 국가는 대학이나 학문에 대해 아무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 권력은 대학이나 학문 연구 기관에 관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이 그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할 때 그것은 바로 국가 자체의 목적까지도 보다 높은 관점에서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국가는 인식하여야 한다고 훔볼트는 또한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대학 교수의 인선이나 임명이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수의 선발권이 정부나 국왕에게 당연히 예속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훔볼트는 당시 독일의 대학이 왕후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교수 인선에서의 교수단의 내부적 갈등, 그리고 특히 대학의 존재가 국가의 직접적 이해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들은 베를린대학의 창건에 즈음하여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았다. 유기체적 학문관의 소산인 모든 학문의 근거로서의 철학, 그 철학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교수되는 대학, 그리고 철학하는 자유와 고독 위에 이루어지는 학자 공동체——이러한 특징을 통해 베를린대학은 '학문하는 자유'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그 '학문하는 자유'는 대학 창건자들이 희구한 바 그대로의 독일적 敎養理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독일의 학

문을 단시일내에 세계의 정상에 올려 놓았다.

시인 브렌타노는 그의 송가 「1810 년 10 월 15 일에 바치는 칸타타」에서 베를린대학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였다.

학문에 의해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유가
전체로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보편적인 것이 되기 위해
이 궁전은 바쳐졌다.
그대들, '학예의 통일'이라는
황금의 구절을 나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다.

베를린대학 본관의 대륜에는 금문자로써 'Universitati Litterariae(학예의 통일을 위해)'라고 새겨져 있다. 베를린대학은 독일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이상주의가 난파된 지 오래된 오늘날 베를린대학도 또한 많은 비판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만 하였다. 우선 비판되어야 할 것은 학자 공동체의 이념이다. 대학 창건에 참여한 모든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그리고 베를린대학의 체제 속에 정착되며 그것을 통해 전 독일적이 된 學者共同體의 이념은 학문하는 자와 일반 시민을 차별하는 知的 교양계층의 신분적 특권을 의미하였다. 어려서부터 실용적인 '일반시민 학교(Volksschule)'와는 엄격히 구별된 '학자학교(Gelehrtenschule)'의 존재와 그 연장 위에 발전된 대학은 신분제적 독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반영으로, 그것이 더우기 프랑스 혁명 뒤에 더 한층 공공연하게 제도화 되었음은 실로 놀랄 만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은 국민 주권의 가장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교육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으며 '모든 학교에서의 절대적 사상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국가 권력의 '한계'를 논한 훔볼트나 프랑스 혁명을 옹호한 피히테도 혁명이 주장한 교육의 평등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인가. 한 나라, 한 사회의 체제와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은 그 나라, 그 사회의 교육 제도에 가장 본질적으로 반영된다 하거니와 학자 공동체의 이념에 따라서 마련된 독일의 학교 체계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여 학문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으나 독일 사회의 근대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두번째로 비판되어야 할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이다. 베를린대학의 이 지도 이념은 일찌기 없었던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학문 언급의 자주성을 성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887 년 동 대학의 총장 취임 연설에서 헬름홀츠가 말하였듯이 독일 대학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유물론을 강의하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로마 교황의 무오류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학문의 자유'는 대학과 대학인의 문자 그대로의 학문하는 자유일 뿐 시민적 자유, 보편적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성은 1816 년 勅令으로 제정된 베를린대학의 학칙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즉 그 학칙은 대학의 단체로서의 전통적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이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법의 규정에 따르는 국가의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학문의 자유'가 배출한 독일 교양 계층의 강한 국가 의존성 속에 그 자유의 한계와 허구성을 역력히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육 부재의 오늘날의 산업 사회가 바야흐로 훔볼트적 교양 이념을 재음미하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다음 호 계속). *